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모든 가족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정은 천국이다.” [빌립보서 2장 6-8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혼은 수사자와 암사자의 만남이 아니라 수사자와 암소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수사자와 암소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암소는 사랑하는 수사자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다 주었고, 수사자는 행여나 암소가 무안해 할까봐 아무 말 없이 풀을 먹였습니다. 또 수사자는 암소를 위해 들판에 나가 사냥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주었고, 암소 또한 수사자가 미안해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꼭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꼭 참던 둘 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하면 다툼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다툼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낮아지고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의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다섯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내 방법대로만 표현하며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을 위해 표현 방법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사랑이 한층 풍성해질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를 사자로 바꾸려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사자를 소로 바꾸려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나에게 맞추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 1) 가족들의 모습 중에서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되는 부분을 나눠봅시다.
- 2)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맞춰보고,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나눠봅시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일주일 동안, 매일 세 번이상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